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여름철 폭염 대응
‘미스트폴’ 설치 운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터미널 앞 도심광장에 폭염 대응 미스트폴(Mist Pole)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미스트폴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쾌적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로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해 체감 온도를 2~5도 가량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미스트폴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동으로 작동되며,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동 주기가 조절된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오가는 부안터미널 앞에 설치되어 이용 편의성과 체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용권 안전총괄과장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폭염 대응 주요
시가지 살수차 8회 운영

부안군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시가지에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살수차는 폭염주의보 발효시부터 운영되며 지난해 대비 1대를 추가해 부안터미널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 주요 시가지 도로를 대상으로 살수작업을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운영횟수는 오전과 오후 각 4회씩 1일 8회 운영된다.

특히 군은 기후위기 취약지역과 생활권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작업을 진행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 집중 살포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살수차 운영을 통해 폭염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에 따른 군민 만족도 향상을 기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무장-공음간 796호선 국지도 승격

고창군, 국가관리로 전환... 시설 기준 대폭 향상

고창군 무장면에서 공음면을 오가는 지방도796호선 8.7km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15호선으로 승격됐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국지도 승격·지정 고시에 ‘고창군 무장-공음간 지방도 796호선(8.7km)’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무장-공음간 지방도는 고창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중심 도로망으로, 매년

봄 청보라밥 축제를 찾는 방문객과 트래커·경운기 등 농기계로 혼잡을 빚어왔다.

특히 급경사와 S자 형태가 10여개소가 넘어 차로이탈과 치명간 충돌사고가 잇따라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국지도 승격을 위한 건의활동을 해왔고 윤준병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으로 선형개량을 약속

하며 힘을 실어줬다.

승격되는 도로는 기존 고창군이 관리하던 지방도에서 국가관리로 전환되면서 시설 기준도 대폭 향상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설계비 100%, 공사비 7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형개선과 4차선 확장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권익현 군수, 국회 방문 RE100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 강조

부안군, 해상풍력 연계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 의지 밝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부안 해상풍력 연계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인 진성준 의원과 경제분과장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만나, 이미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RE100 국가산업단지가 부안에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와 지역의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입지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부안 해상풍력 연계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핵심이며, 이러한 정부 정책이 부안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찾아가 설명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 정선군,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 열려

고창군과 강원 정선군이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교류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정선군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최승준 정선군수, 양 지역 관계자 30여명이 함께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에 힘써온 양 군의 노력을 돌아보고, 향후 정기적인 실무 교류, 공동사업 발굴 등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앞서 고창군과 정선군은 지난해 7월4일 자매결연 이후 지역 간 실무



중심의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화예술과 관광, 농업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기반을 확장해왔으며, 양 기관 실무자 간 워크숍 및 현장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왔다.

특히, 작년 10월 정선 아리랑제와 11월 고창 모양성제에 상호 문화예술훈단이 방문해 축제 현장을 체험하고, 특산물 유통 협력, 관광자원 공동 홍보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간직한 고창군과의 협력으로, 강원과 전북을 대표하는 상생모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선군과의 인연은 단순한 행정교류를 넘어, 지역 간 상생과 공감의 동반자 관계로 더욱 성숙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일 잘하는 공직문화 만든다

정읍시, ‘적극행정·협업 바로 보상제’ 시행

정읍시가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과 협업 실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시는 ‘적극행정 및 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단순한 연말 평가 중심의 포상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현장의 노력과 실천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행정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공무원이 일상 업무 속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협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경우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중심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해당 내용은 부서장의 추천을 통해 내부 심사

를 거쳐 누적 관리된다.

마일리지는 분기 단위로 아닌 상시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직원에게는 정읍시립상품권이 즉시 지급된다.

시는 즉각적 보상 체계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 내 긍정적 경쟁과 협업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적극행정과 협업은 변화의 시작이며, 그 노력에 대한 즉각적 보상은 공직자 자긍심은 물론 시민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전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타 시·군·구에서 정읍으로 이사 온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발 전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 이사비 △입주 청소비용이며, 총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정읍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7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미 전입을 마치고 이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안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집을 구하는 것 외에도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이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전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전수조사

정읍시가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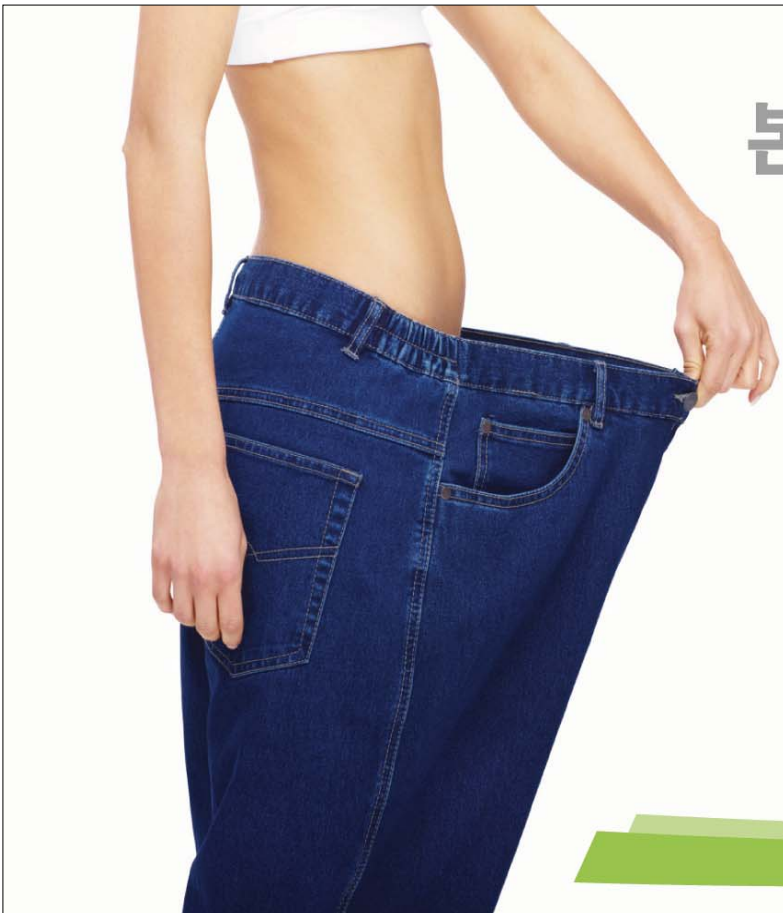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시는 7월부터 11월까지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45개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부터 보행자 동선, 시설물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시

설 정비가 필요한 보호구역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구역의 확대·축소 또는 신규 지정이 필요한 지역도 함께 검토해 교통 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석주 교통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